

2019.07.24.

제27회 아산서평모임

김명구(지음),

『한국기독교사(1) : 1945년까지』(서울 예영컴, 2018), pp. 584.

신 복룡(건국대학교)

인사의 말씀 :

1. 종교인은 호교론과 외삽법 사이에서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

*서평자의 역할: “할퀴기의 역사”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정어린 협력자(friendly helper)로서의 역할이 소중하다.

“어떠한 저술도 3판(3rd Edition)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글에 장담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말미(제6부)에 등장하는 감리교사를 보면서 호교론적 시각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2. 역사로서의 종교사는 분류사인가, 특수사인가?

이러한 명제를 제기하는 기본적인 이유- 나 자신이 역사학의 정통이 아니라 분류
사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임

왜 이와 같은 초기 역사를 외면한 채 천주교의 비행을 먼저 기록했을까?

기독교 전래의 시원(始元)을 가리자면,

Basil Hall(1788-1844)의 경우 : 1816년에 백령도와 고군산열도에 성경을 전수함

Karl Guetzlaff(1803-1861)의 경우 : 1832년에 유태계 폴란드인으로서 태안반도에
상륙하여 포교와 농법을 가르쳐줌

본디 Evangelism은 anti-catholicism에서 출발(p. 135)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교난[이재수의 난](1901)의 문제 등, 이런 논리가 마치 실패한 천주교를 “대신
하여”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 개신교라는 뜻이었을까?

천주교 순교자의 숫자

김명구, p. 33 - 8,000명, 천주교의 입장-1,850명

3. 종교는 민족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 “한국교회가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주장(p. 8)의 논란에 관하여 :
한국교회사는 이런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친일논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상동교회와 William Scranton(Yale Univ.)의 비극적 생애는 누구의 책임인가?

해리스(Merriam C. Harris) 감독의 친일 행각에 대한 참회

p. 254 : 스크랜튼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동정(同情)을 표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는 대목-김정명, p. 69의 진위(眞僞) 여부는 ??????

3·1운동 시기 33인의 변절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카톨릭은 일제시대의 친일을 회개하고 고백하는데 100년이 걸렸고,

갈릴레오에 대한 박해를 참회하는 데 250년이 걸렸는데

개신교에서는 왜 친일에 대한 참회가 없었는지???

James Gale, *Korea in Transision*(Cincinnati : Jennings and Graham, 1909),
p. 165;

“교인들은 무심히 앉아 멸망한 조국을 지나가는 개 쳐다보는 듯했다. 이는 애국자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끝까지 일본이나 일본인을 적대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기독교 민족주의 역사에서 基督教大韓福音教會는 잊혀진 전설인가?

최태용(崔泰瑢) 감독의 교리

(1) 믿음은 복음에 기초해야 한다.

(2) 믿음은 민족을 고민해야 한다.

(3) 성직자들은 더 공부해야 한다.

민족은 등지와 같고 교회는 알과 같은데 등지가 무너지는데 한국기독교는 알만 무사하기를 바란 것은 아닌지?

왜 백락준의 박사학위논문은 합방이 된 1910으로 끝나는가?

네비우스의 정신은 죽었는가?

“한국교회에서는 지식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p. 434)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안창호는 이토 히로부미의 보호국체제를 인정했다”(p. 247의 각주 19)는 논리는 충분히 feedback 될 수 있는가?

이 책의 가치 :

이제까지 외면해온 한국기독교의 음지, 곧 친일의 문제에 대한 뼈아픈 고백록이다. 이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 글은 훌륭한 글이지만,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 글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일제와 한국교회는 3·1운동이나 신사참배운동에 대한 찬양에 매몰되어 왔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훌륭하다.

4. 지금의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의 한국 교회보다 건강한가?

독자가 이 책을 통하여 얻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신앙이 복음에 기초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지만, 복음주의 계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부활과 영생과 구원만을 강조하는 사이에 인간의 상식적 도리, 이를테면, 교양, 지식, 전통 윤리, 과학을 도외시한 원리주의에 흐를 위험은 없는지?

현대의 삶은 초대교회처럼 살 수는 없다.

“오로지 성서대로”(sola scriptura),

“오로지 거룩한 것만을”(sola sanctus),

“오로지 은총만으로”(sola gratia)

500개의 교파, 1인 1교파가 300개

물량/세습에 대한 예레미아적 통회(痛悔)는 가능한가?

지금의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보다 건강하고 행복한가?

5. 필자에 대한 감사와 고언

글쓰기의 습관

(1) 각주에 대하여 원전을 밝혀야 할 자리에 필자의 의견을 첨가한 사례가 많다.

(2) 신미양요의 전황- 김명호 교수의 저술에 의존

Tilton Report, Admiral Schley Report 등 미국의 원자료와 한국 자료도 풍부 특수사로서 1차 사료에 대한 태클-이 정도로 쓰기도 어렵지만 더 훌륭한 노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3) 왜 『신구교 공동 번역 성경』은 버림을 받았는가?

김 교수는 개신교에서 금기시 된 “여호와”를 “야훼”라고 썼는지?(p. 125)

(4)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안 되나?

(5) 한국의 전통제례에 대해 좀 너그러울 수는 없는가?

*** 몇 가지 오류**

- p. 41 : 신미양요의 함선 Monocracy--Monocacy
- p. 159, 코프 주교(C. J. Corf)--코르프 주교라고 읽음
- p. 248 井深樞之助 - 이부카 카지노스케
- p. 249의 각주 26
柏木 義円 - 가시와키 키기엔, 吉野 作造--요시노 사쿠조, 湯淺 治郎 --유아사 지로
森 有禮 모리 아리노리- 신도(神道)가 아니라 극우주의자의 칼에 죽음
자살(刺殺)--척살(刺殺)
- p. 251의 각주 30번....?????
- p. 254의 참고문헌과 본문 : 金政明 -- 金正明
- p. 314/542/기타 여러 곳 : F. A. Mckenzie- F. A. McKenzie
- p. 330/각주--- 선우훈 --- 책이름 ?????(『민족의 수난』)
- p. 350/3행--- 박희동-박희도????
- p. 376--- 상(像)이 되었다.--- 상(相)이 되었다.
- p. 377/각주 46 : 윤보선과 유림/유원식과의 관계 ???/
- p. 424 --- 성제 이동휘=== 성재(誠齋) 이동휘
- p. 468--- 조병옥의 학위논문
- p. 518 노구교(蘆溝橋) 사건==노구교(蘆溝橋) 사건
- p. 529 심통한 심정== 침통(沈痛)한 심정

훌륭한 『한국기독교사』 2권을 쓰시기를 기대하며